

꿈을 향한 열정과 노력은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

길림대학 리혜정학생, 장춘조중 후배들에게 알찬 강연

2월 28일, 대학입학 시험을 100일 앞두고 장춘시조선회중학교는 고중 3학년 학생들이 마지막 스포츠 단계에서 자신감을 유지하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큰 격려와 동기부여를 제공하기 위해 2020기 우수 졸업생 리혜정 학생을 초대하여 알찬 강연을 조직, 대학입시 대비 노하우를 공유했다.

리혜정은 2020년에 장춘시조선회중학교를 졸업하고 590점의 우수한 성적으로 길림대학 철학사회학원에 입학하여 로동및사회보장전업을 전공하고 있으며 동시에 길림대학 학생회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에는 길림성우수대학생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강연에 앞서 리혜정은 작은 유희를 조직하여 이를 시작으로 강연의 따분함을 없애고 학생들이 더욱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강연의 전체적인 흥미와 매력을 높였고 학생들의 집중력을 한층 끌어올렸다.

강연에서 리혜정은 고중 3학년 학생들에게 고중 단계에서 느꼈던 자신의 학습과 생활에서의 즐거움, 도전, 보람 등을 공유하면서 직접적인 경험과 깨달음을 통해 자신감을 키우고 시험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며 용감하게 대학입시에 맞서라고 격려했다.

또한 리혜정은 다채로운 대학교 생활을 공유하면서 고중 3학년 학생들에게 대학 생활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강연현장

알려주고 자신의 꿈을 향한 열정과 노력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려주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대한 동경을 동력으로 삼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모교의 후배들에게 원했다.

“오늘 강연을 듣고 나서 저도 선배님처럼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꼭 노력을 다하여 선배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입시까지 남은 100일 동안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부모님과 선생님들에게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고 고중 3학년 2반 조국빈 학생은 신심에 가득차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춘조선회중학교 고중 3학년의 전체 학생과 고중 1, 2학년의 부분적인 학생들이 현장에서, 초중부와 고중부의 기타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흥미진진하게 강연에 귀를 기울였다.

리혜정학생은 행사에서 길림대학의 8개 캠퍼스 대표적 건축 사진과 교육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어록이 적힌 책갈피 150여세트를 모교의 후배들에게 선물하면서 중학교 후배에 이어 길림대학의 선후배로서 인연을 이어가기를 기원했다.

/글 정현관기자
/사진 손병번기자

새 학기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요! 심리조절 지침

또 하나의 새 학기를 맞이했다. 학생들은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새 학기에 임해야 할까?

생체시계 조절, 새로운 생활에 적응

량질의 생체시계는 지속적인 강화로 더 나은 추동 작용을 가진 생명 법칙을 형성한다. 방학 동안 아이들은 학습과 휴식 시간이 불규칙적이었으므로 미리 학교의 시간에 맞게 학습과 휴식 시간을 조절하고 절도 있게 생활해야 한다.

강력한 추동력 유지, 계획 잘 세워야

새 학기 아이들의 학습, 생활, 운동, 취미 등에 따라 부동한 단계 목표를 기획해야 한다. 아이가 작은 목표를 실현했을 때 학부모들은 적절한 보상을 주어 아이의 성취감을 높이고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마음가짐을 바로잡고 정서 받아들이야

개학 초기에는 생리적으로 불면증, 졸음, 리유 없는 어지럼증, 메스꺼움, 복통, 피로, 식욕부진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리적으로는 기억력이 감퇴하고 리해력이 저하하며 공부할 때 지치고 초조하고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

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개학증후군’의 증상은 정상적인 현상이며 부모는 자녀가 제때에 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모든 정서적 반응은 정상적이고 일시적이며 조정할 수 있기에 함께 노력하면 된다.

‘SWTC’로 정서를 호위하기

아이가 부정적인 감정에 직면했을 때 ‘SWTC’ 방법을 사용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고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용감하게 맞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S → STOP ‘멈춤’, 부정적 사고의 확장을 중단하는 것. W → WRITE

‘쓰기’, 부정적인 감정을 과감히 표현하는 것. T → THINK ‘사고’, 리지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C → CHANGE ‘바꾸기’, 발상 전환을 하는 것.

과감하게 시도하고 심리적 편안함에서 벗어나기

사람이 편안한 상태에 오래 있으면 진취적이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게 되는데 이를 심리학적으로 ‘화반효과’라고 한다. 새 학기에 아이들이 안정감을 거부하고 용감하게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서 도전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기회를 창조하고 스스로를 초월해야 한다.

/인민넷

도서관에 설치된 ‘멍때리기’ 구역, 학생들의 뜨거운 반응

광둥재경대학교 광주캠퍼스 도서관에 ‘멍때리기 구역’이 설치되어 인터넷에서 화제다.

많은 학생들이 이 공간에서 시험준비를 하거나 휴식을 취한다고 한다. 학교측은 학생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멍때리기 구역’을 개설한 지 이미 몇년이 지났으며 ‘멍때리기’라는 재미있는 이름이 인기를 끌고 있는바 앞으로도 계속 증축하고 공간 개선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멍때리기의 본질은 ‘인생에 대한 사색’이다. 멍때리기 구역을 만든 목적은 학생들이 휴식하고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며 광둥재경대학교 도서관 관장 왕충정은 전했다.

학생들은 멍때리기 구역에서 전망 감상, 명상, 교류, 걷기, 식사, 휴식 등을 할 수 있으며 광주 인공지능과 디지털경제 시범구역인 주강신성(珠江新城) CBD의 풍경을 감상하며 꿈을

을 기울 수 있다.

현재 도서관에는 총 6곳의 멍때리기 구역이 있으며 열람실과 린접해 있다. 구역내에는 야외용 테이블과 의자, 식물 등이 있다. 도서관은 학생들의 수요에 맞춰 구역내 인테리어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둥재경대학교 심리상담센터 부주임 왕문룡은 “멍때리기 구역은 학생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 바쁜 일상 속에서 멍때리기를 통해

재충전하는 방법을 알려주어 학생들이 마음놓고 멍때릴 수 있도록 한다.”며 “멍때리기 구역의 인기는 현대 젊은이들이 간단하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마음가짐을 나타내며 긍정적이고 격려할 만하다. 더 많은 학교와 직장에서 젊은층의 멍때리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하기를 권고한다.”고 전했다.

/중국청년보

“낮엔 출근하고 밤엔 향학열 불태워요”—야간학교 흥기

야간학교(야학)는 저녁 비근무 시간을 리용해 재교육을 실시하는 교육 방식으로 1980년대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후날 대학생 확대 모집 및 온라인 정보 기술이 발달하면서 각 지방의 야간학교는 점점 인기가 시들해졌는데 근년 들어 또다시 젊은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상해시민야학 가을학기 반 수강생 모집에 65만명이 넘는 인원이 1만개에 육박하는 강좌 등록을 놓고 쟁탈전을 벌이면서 인기 검색어에 올랐는데 12개 강좌는 60초 만에 마감됐다. 현재 북경, 서안, 심수, 성도 등지에도 야학이 많이 등장했는데

대부분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 2일 소주대학교는 공지를 통해 소주대학 야학이 공식 개설되었다고 발표했다. 공지에 따르면 소주대학 야학은 만 18세—55세의 성인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하며 무용, 성악, 서예, 메이크업, 요가, 사진 촬영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가 개설되어있었다.

강소성 무석시의 ‘청년야학’은 ‘공산주의청년단 단체 + 청년동아리 + 사회조직’의 자률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며 팔단급(八段錦), 재즈댄스, 메이크업 등의 강좌를 비롯해 ‘PPT 향상 프로그램’ 및 ‘숯품 실무 팁’ 등의 강좌

도 있다.

야학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익성과 질량이 청년야학이 어필하는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상해 시민예술야학의 한분기 수업은 12회이며, 수업료는 500원에 불과해 가격이 높지 않다. 하지만 질이 낮은 것이 아니다. 향주시 소재 여러 문화관에는 커피 한잔 값으로 수준 높은 취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청년야학이 개설되어있다. 무한시가 지난해 11월에 개설한 청년야학은 ‘수업료 0원, 체험 만점’의 강좌로 젊은이들에게서 각광받고 있다.

/인민넷

교육부: 매년 2만명 로령교원

파견해 민영교육 지지할 계획

교육부 판공청은 일전 통지를 발부하여 로령교원 민영교육 지지 행동 관련 사업을 실시할 데 관해 배치했다. 일련의 우수한 퇴직교원을 조직 선발해 각급 각종 민영학교, 특히 민영대학교를 상대로 교육지원, 연구지원을 전개하며 매년 약 2만명을 선발 파견할 계획이라고 했다.

오프라인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는 로령교원의 연령은 일반적으로 75세 (포함) 미만이어야 하고 기초교육 분야에 참여하는 연령은 일반적으로 70세 (포함) 미만이어야 한다.

통지에서는 로령교원이 서부지역, 민족지역의 민영학교에 가서

연계, 산업, 기업의 급히 필요로 하는 부족한 전공에 몸을 바쳐 민영학교가 단점을 보완하고 약점을 강화하며 품질을 높이도록 도와주는 것을 격려한다고 제기했다. 민영학교가 ‘지도교수제’를 탐색, 추진하여 자질이 높은 퇴직교원이 청년교원들의 지도교수를 맡아 전승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격려한다.

통지는 로령교원 지원봉사 시간은 원칙적으로 한학년 이상이여야 하고 지원학교의 교육교수 및 관리 수요에 근거하여 유연하게 지지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인민넷

연변·연길 과학기술협회

도서 증정으로 과학보급 교육자원 풍부히

—공룡박물관에 길림성과과학보급교육기지 간판 수여

2월 27일, 연변조선족자치주과학기술협회와 연길시과학기술협회는 연길시 공룡박물관에서 과학보급 도서 증정 의식과 함께 길림성과과학보급교육기지 간판을 수여했다.

도서 증정 의식에서 주과학기술협회는 연길시공룡박물관에 가치가 5만 원에 달하는 공룡주제 계열 과학보급 도서를 증정했다. 증정한 도서들은 주제가 선명하고 내용이 풍부하여 공룡 과학보급 교육자원을 한층 더 풍부히 했는바 공룡 관련 과학보급 지식의 홍보와 보급에 더욱 유리하다.

주과학기술협회 주석 김응문이 주과학기술협회를 대표해 연길시공룡박물관에 길림성과과학보급교육기지 간

판을 수여했다.

최근년간 연길시에서는 과학보급기지 건설 사업에 높은 중시를 돌려성, 주 과학보급기지 신청 및 인정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여러 단계의 추천과 신청을 거쳐 연길시공룡박물관이 2023—2027년 길림성과과학보급교육기지로 비준되었다.

연길시공룡박물관은 길림성에서 유일한 공룡테마박물관으로 화석 발굴 및 보호, 과학연구 및 과학보급, 교육과 오락을 융합한 과학보급 교육기지이다. 공룡박물관에서는 과학보급 강좌, 박물관 참관, 고생물 그림 전시회 등 행사를 경성적으로 조직해 광범한 시민, 관광객들에게 공룡문화의 매력을 선보이고 사회 각계층에 고생물 관련 지식을 보급함으로써 박물관의 과학보급교육 기능을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

/연길시위 선전부

개산툰진정부

학생들과 함께 홍색교육 활동

룡정시개산툰진인민정부와 룡정시룡정실험소학교는 새학기를 맞으며 일련의 홍색교육 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다지기에 일조했다.

일본연변침략죄증관, ‘당기 따라 개산툰의 꿈 기록하자’ 전시관 등 홍색관광지 참관 활동을 조직했다. 참관 활동에서 개산툰진공정단위원회 책임자가 강연과 랑송의 형식으로 항일전쟁 시기와 새시대 민족 단결 영웅모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에 학생들은 영웅을 따라배우고 패기 있는 중국인이 되려면 열심히 공부하여 조국을 더욱 아름답게 건설하고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열심히 분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월대보름을 맞으며 개산툰진정부 사업일군, 룡정시실험소학

교의 사생, 남산변경파출소와 개산툰진변경파출소 경찰, 개산툰진 각 지역사회 사업일군 등은 함께 원소 빛기, 등롱 수수께끼 맞추기 등 오락활동을 진행했다. 흥미진진한 활동을 통해 중국 전통 문화와 풍속을 배우는 목적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 생활을 풍부히 하고 각급 대중간의 교류를 강화하여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한층 더 굳건히 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이외에도 취미운동회를 벌이고 ‘굴렁쇠 굴리기’ 등 여러가지 재미있는 시합경기로 심신을 단련했는가 하면 집단무용 배우기 활동을 펼쳤는데 학생들은 아름다운 복장을 입고 리듬에 맞춰 활력과 격정이 넘치는 동작들로 마음껏 자신의 활력을 발산했다.

/오건기자

/사진 개산툰진정부 제공



‘로혁명근거지 개산툰진 홍색발자취’를 참관하고 있는 학생들